

올여름 힐링 여행, 경남 창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여행이 주춤하는 요즘 타인과 대면을 최소화한 언택트 여행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여름철 휴가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진다.

경남 창원시는 324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시가지를 병풍처럼 둘러싼 무학산, 장복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췄다. 올여름 소수 지인과 단출하게 또는 나홀로 편안하게 보내는 '힐링 여행지'로 창원을 추천하는 이유다.

낮에는 비치로드, 밤이면 스카이워크

마산 합포구 구산면 저도 일대는 낮과 밤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저도 비치로드는 섬 모양을 따라 둥글게 조성된 6.5km 해안 둘레길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걷기 좋은 길이다. 햇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물결을 감상하면서도 정작 걷는 구간은 해가 들지 않아 여름철 트래킹코스로 인기가.

저도와 구복리를 잇는 연륙교를 건너면 붉은색 철제 교량인 저도 콰이강의 다리가 반긴다. 1987년 건설된 이 다리는 2004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새 다리가 개통되면서 보행자 전용이 됐다. 창원시는 2017년

오래된 다리를 철거하는 대신 바닥 일부에 투명 강화 유리를 깔아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다. 유리 바닥에 서서 13.5m 아래를 내려다보면 남해안 특유의 잔잔한 물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연인과 손을 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밤이면 알록달록 경관 조명이 다리 전체를 감싸 낭만을 더한다.

편백숲 걸으면 '무더위 훨훨'

여름철 힐링을 위한 트래킹코스도 '창원 편백숲浴(욕)' 먹는 여행'도 추천한다. 벚꽃 명소 여좌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진해드림로드, 제항산공원을 잇는 25km 도보 여행길이다. 이 중 나 혼자 여름을 비껴간 듯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편히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안민고개 에코힐링센터를 시작으로 천자봉 해오름길을 거쳐 황톳길, 청룡사 에코힐링센터, 해군 쉼터, 해병훈련체험 테마 쉼터, 목재 문화체험장 에코힐링센터까지 이어지는 10km짜리 순환 길이다. 곳곳에 편백숲이 우거져 땀 흘리지 않고 점잖게 피서 즐기기가 좋다. 창원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안민고개도 빼먹지 말아야 할 코스다.



3
1 옛지 워크
2 짚트랙
3 해양공원과 짚트랙
4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야경
5 저도 비치로드



짚트랙 타고 날아볼까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데 짜릿한 체험만 한 것이 또 있을까? 오로지 줄에 몸을 매단 채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활강하는 이색스포츠 '짚트랙'을 창원에서 만난다.

창원 짚트랙은 진해 해양공원이 자리한 읍지도에서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4km에 달하는 거리를 최고 시속 80km로 이동한다. 출발지까지 제트보트를 타고 돌아오면서 설 새 없이 바닷물을 맞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달아난다. 94m 높이 외벽을 따라 몸을 뒤로 기울인 채 걷는 옛지 워크는 아슬아슬하다 못해 아찔하기까지 하니 본인의 담력이 궁금하다면 도전해보자.

해수욕 대신 수상레저 어때요

여름 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휴가철 바다의 모미는 여러 사람과 부딪히며 노는 데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해수욕 대신 혼자 또는 소수 지인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레저도 좋을 것 같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있다. 깊고 푸른 마산만과 진해만 한 가운데서 크루저 요트, 래프팅, 카약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물살이 세지 않아 초보자도 안심이다. 특히 마산 해양레포츠센터는 돌섬 안에 있어 배를 타고 가는 재미가 덩이다. ㉞

창원 저도 연륙교 야경

콰이강의 다리

- '느린우체통' 이용 10만명 돌파 -

